

광주 FC '2020 시즌' 흠 속의 진주를 찾아라



27일 수원 원정전, 예비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
선수들 기량 점검·전술 다양성 시험... 내년 밑그림
'득점왕' 펠리페 추가골·팀 연습 '관심'

33라운드 만에 K리그2 우승을 확정 지은 프로축구 광주FC가 2020시즌 준비를 시작한다. 광주는 27일 오후 1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가수원 FC와 2019 K리그2 3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승점 70점(20승 10무 3패)을 채웠다. 2위 부산아이파크는 같은 라운드 안산전에서 0-2로 패하며 승점 10점 차로 멀어졌다. 이와 함께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광주 K리그2 우승이 확정됐다. 창단 첫 우승을 이룬 광주는 2년 만에 K리그1에 복귀하게 된다. 광주는 올 시즌 남은 세 경기를 통해서 일찍

2020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뒤에서 묵묵히 우승에 힘을 보탠 '12번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계획이다. 광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광주는 내부 경쟁을 통해 시즌 내내 두터운 선수층을 과시했다. K리그1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준 광주는 이번 수원 원정을 시작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전술의 다양성을 키우게 된다. 김주공, 홍준호 등은 훈련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이며 최근 맹활약을 하는 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이희균, 엄원상 그리고 부상에 돌아온 김정환 등 출전 경기수가 적었던 선수들은 잔여 경기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끝냈다.

광주의 '해결사' 펠리페와 치솟(수원FC)의 득점왕 경쟁도 남은 시즌 주요 관심사다. 펠리페는 33라운드 안양전에서 머리로 시즌 18, 19호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지난 2라운드 동안 득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치솟(18득점)을 끌어내리고, 선두자리로 복귀했다. 잔여 경기를 통해 펠리페는 득점왕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는 수원FC와의 역대 전적에서 11승 4무 5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에도 6득점 1실점의 압도적인 공세로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 최근 분위기도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4연승과 함께 우승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수원은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에 그치면서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다. 부산과의 뜨거운 우승 경쟁은 막이 내렸지만 광주의 연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승팀' 광주가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리페·김주공·두현석·아술마토프 '베스트 11'

'33R' 광주 FC 베스트 팀 선정

광주FC가 우승을 확정지은 33라운드에서 4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4일 2019 K리그2 33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4-0 승리를 장식한 광주에서는 펠리페와 김주공, 두현석, 아술마토프 총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펠리페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뒤, 전반 11분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33라운드 MVP 영예를 안았다.

김주공은 펠리페에 이어 멀티골을 기록하며 광주의 4-0 승리를 완성했다. 두현석은 펠리페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베스트 11이 됐다. 아술마토프는 완벽하게 안양을 봉쇄하면서 시즌 17번째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70점에 선착한 광주는 남은 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K리그2 우승을 확정했다. 또 이번 라운드 베스트팀까지 선정되면서 올 시



펠리페 김주공 두현석 아술마토프
준 최고의 라운드를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학무적' 광주대 축구부



22일 광주상무시민축구장에서 열린 2019 U리그 6권역 광주대와 조선대 경기에서 광주대 김태민(2년)이 전반 27분 동점골을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19시즌 U리그 3년 연속 권역 우승 ... 전국 왕중왕전 진출 확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축구부가 2019시즌 U리그에서 7연승 행진으로 3년 연속 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지난 22일 광주상무시민축구장에서 열린 U리그 6권역 조선대와 경기에서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대는 시즌 전적 12승 2무 1패, 승점 38점을 확보하며 남은 1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전국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전반 2분 만에 선취골을 내준 광주대는 전반 27분 동

점골을 터트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경기 내내 상대방 왼쪽 진영을 공략한 김태민(2년)이 페널티박스까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기록했다. 전반을 1-1로 마친 광주대는 후반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설현진(1년)이 후반 33분 골키퍼를 제치며 추가 골을 넣었고, 리그에서 11경

기 11골로 무서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종민(2년)이 후반 44분 쐐기골을 장식했다. 광주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조선이공대와 광주상무 시민축구장에서 권역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대학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19시즌 U리그는 전국 9권역에 82개 팀이 참가했으며 6권역에서는 광주대를 비롯해 동강대, 동신대, 남부대, 초당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호남대, 한려대 등 9개 팀이 경쟁을 벌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광FC U-18' 지역 고교축구 평정

광주·전남 리그 2년 연속 우승... 내달 전국대회 출전



창단 3년 차인 영광FC U-18팀이 '2019 광주·전남 고등 축구리그'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영광FC U-18팀은 창단초기 젊은 선수층과 신생팀이라는 약조건을 딛고 2018년 백운기 전국 고등축구 대회 3위 입상을 시작으로 전국대회인 왕중왕전에서 8강 진출했다. 2018년 광주·전남 권역 축구리그 우승, 전라남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2019년도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 3위 입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이태엽 감독의 공이 크다. 고향인 영광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제2의 축구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 감독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우승제조기'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감독은 "11월 16일부터 충북 제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고등 축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출전준비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 영광FC가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FC U-18팀의 구단주인 김준성 영광군은 "오늘의 우승이 그간의 고된 훈련에 대한 보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축구강호로서 영광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